

지상 법석

부처님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복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 복을 지어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유용하게 쓴다면 물질 복을 짓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있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 한가지 물건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깨끗이하여 모든 번뇌를 지혜로 풀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승가, 재가든 불자를 너무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부처님이 생기고 세력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국 같은데서는 복을 비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역사 이래로 전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나운 전경이 있을지 모르겠지요. 내전에 의해 나라가 망하자 외적의 침입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일은 전무무한 일일 것입니다.

자기 일 잘하고 지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교이고 불자의 도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들이 기도만 하면 부처님이 뭐든 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별하는 것, 복을 지어라 하는 것이 물질 복을 지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복을 스스로 노력해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사람한테는 어떤 일을 다룰 수 없을 깨달음을 위해 수 많은 아예는 고(苦)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성냄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거만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애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정신에도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 괴로움이 없어 지기 때문입니다.

피가 되어 돌아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화낼 때 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껴보세요. 함악한 얼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짜증나고,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아낄 수 있는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독한 얼굴을 하고 부처님 앞에 합장

전혀 마음이 없고해서 살짝 옆에서 장난삼아 기만 들여다보니까 고개는 들고 숨소리만 색색거리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손을 얹고서 주삼자로 받바닥을 딱 때리니까 효봉스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때 잠깐 주삼모양입니다. 주삼모양도 품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냥 보통 수좌였다면 어쩔 줄 모르는 애기죠. 한생 님께서는

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말보다는 실천의 수행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아옵니다. 나를 아끼고, 이웃을 아끼고, 나라를 아끼게 한마음되어 실천수행하는 것이 개혁으로 가는 한국불교를 이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무조건 절에 가서 받고 스님에게 절한다고 해서 복 받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불자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불자, 실천하는 불자를 지금의 한국불교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실천수행함으로 해서 좋은 길을 가지 못하는 스님들을 재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신도들 때문에 스님들은 내태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승가는 승가나승대로, 재가는 재가나승대로 제 모습 찾기에 열중해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지혜생거

하지만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선(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참선을 한다고 하니 답답한 느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손·발등 몸관리만 바르게 해도 극락 "눈앞"

물질 보시보다 정신적 자비행이 더욱 중요

정신이 똑바르면 승구멍이 트이는 법입니다. 불법을 따르고 실천하면 지혜가 광명이 되어 나옵니다.

물질에 허덕이다보면 눈도 가물거릴 것이고 정신도 혼미해 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끊기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눈이 맑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단번에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실천하고 부단한 수행을 쌓아야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성냄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거만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애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정신에도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 괴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피가 독한

하고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 자살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짓밟지 말고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아끼라고 말씀하신거죠.

부처님 흉내라도 내자

내가 수행할 때 효봉스님과 목욕을 해보면 효봉스님은 마치 백일안 얘기 듣지라도 같았습니다. 물에 꼭 솜뭉치 띄워 놓은 것 같았지요. 그러나 효봉스님의 몸을 만져보면 쇠덩이 만큼 단단했었습니다.

또 채인사 방장할 때 20일동안 등을 땅에 붙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70노인이 고개도 끄덕임을 정도로

안되는 것입니다. 내생 뒤야 줘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입만 부처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를 아끼고 잘 관리하고 실천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산불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자기 몸통이 한번 만났다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알아야 합니다. 이 몸통이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만났다가 하늘에 발바닥만 깔거나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몸이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짓고, 수행도 열심히 해서 부처님 근저라도 가는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깨우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진실로 한마음으로 구하면 바로 결의

한국불교가 발전하고 재생하려면 우선 각오와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왜 불자를 공부하는지, 왜 절에 다니는지, 왜 기도하는지 알고 난 뒤에 절을 찾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가야합니다. 알고 믿었다는 각오를 가지고 불교를 믿어야 더 이상 한국불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자를 먼저 세우십시오. 생각이 온전한 지혜가 생기고 생각이 흩어지면 지혜를 잃는 법. 이 두 걸레를 함께 알아서 지혜를 따르려 도를 이루고 각오가 부처를 잡니다.

계몽되지 말고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즐거운 법을 따라 즐거운 나이가 됩시다. 성불하십시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상대론과 연기론 (1)

김성규



20세기 최대의 과학자 아인슈타인(1879 - 1955)은 뉴턴까지도 포함하여 과학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과학자로 이미 신화적 존재가 되어버렸다. 총 많은 16살 된 소년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었던 화두는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물체를 보면 물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화두가 1905년 발표된 '특수상대성이론'에서 밝힌 '광속도 일정의 원리'라는 대전제를 확립하게 하였다.

1. 일정한 속도로 직선운동을 하는 입장에 있는 것끼리는 서로 '상대적'이다.
2. 그러나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이라도 단 하나만은 '절대적'인 것이 있다 -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300,000Km로 달리는 비행기를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300,000Km로 나아가는 빛을 바라본다면 빛은 일초에 400,000Km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만약 비행기가 빛과 같은 방향으로 달린다면 빛은 일초에 200,000Km로 달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무엇이 이상한 것일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수상대성이론을 하고있는 물체에 한해서 적용되는 '특수상대성이론'의 틀 속에서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우주에서는 특수상대성이론과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린 우주물체를 보면 물체가 어떻게 보일까? 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화두가 1905년 발표된 '특수상대성이론'에서 밝힌 '광속도 일정의 원리'라는 대전제를 확립하게 하였다.

1. 가속도가 있는 계에서도 광속도 불변에 근거를 둔 현상은 일어난다.
2. 가속도와 중력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동안은 밑바닥으로 내려올라는 것같은 느낌을 갖게되며,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오면 자신의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더욱 실감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우리가 로켓트를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있다면 중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중력은 질량이 큰

빛의 속도로 달릴때

외부 물체 길이는 작아진 듯 하고 시간 진행은 더 빨라보여

그런데 아인슈타인 주장한 특수상대성이론에서는 일초에 100,000Km로 달리는 비행기가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일초에 300,000Km로 달리고 있는 빛의 속도는 300,000Km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대 속도 $V = V_1(\text{자신의 속도}) \pm V_2(\text{관측자의 속도})$, 특수상대성이론에서의 상대 속도 $V = (V_1+V_2)/(1+V_1V_2/C^2)$ 으로 주어진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빛의 속도에 비견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는 비행기를 타고 어떤 물체를 바라본다면 물체의 길이가 오그라들어 짧게 보이며, 물체의 질량은 더 커지게 되며, 비행기 내에서의 시간진행은 외부에서의 시간진행보다 느려지게 된다. 한쌍의 쌍둥이가 있는데 한 명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떠났다고 하자. 우주선의 속도가 광속의 99.9%라고 한다면 바깥 세계의 시간진행을 10이라 할 때 우주선 속의 시간진행은 0.045가 된다. 즉 우주선 속에서 16일이 지나면 바깥세계는 1년이 지나가 버리게 된다. 우주여행을 떠난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지구에 남아있는 아이는 청년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쌍둥이의 패러독스'이다. 그러면 이 패러독스의

것(우리의 경우는 지구)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로켓트가 지구의 인력에서 벗어나게 되면 중력을 잃어버리고 우주공간에 떠돌아 다니게 된다. 이 때 로켓트가 먼 곳에 있는 별을 향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가속될 때) 로켓트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의자가 뒤로 쏠려지는 듯한 힘을 느끼게 된다(가속도에 의한 효과). 다음은 이 로켓트 바로 뒤로 후속이 하나 지나가고 있다면 이 때 로켓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로켓트가 가속될 때와 같이 뒤로 쏠려지는 듯한 힘을 느끼게 된다(중력에 의한 효과). 바로 공간의 한 점에서의 중력과 가속도의 효과는 동등한 것이다.

큰 중력 속에 있는 것을 밖에서 바라보면 중력장 속에서는 시간이 늦어지고 중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길이가 축소되어 보이는 것이다. 우주선이 광속의 99.9%로 '관성비행' 즉 이미 가속을 중지하고 관성으로 날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 이 때 우주선과 지구는 완전히 상대적인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우주선에서 지구를 관찰하는 것이나 지구에서 우주선을 관찰하는 것이나 어느 쪽에서 관찰하여도 서로 상대방의 시계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불교 성지순례

인도에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 관광국 후원 인도·네팔 순례 14일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गर)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랫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내무대학 교환교수,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 근 순례일정:** 서울-방콕경유-네팔(카트만두, 히말라야산, 룸비니)-인도(브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गर, 아그라, 아진타, 발라푸르 기원정사, 라자기르 죽림정사 등 순례) 13박 14일
- 근 출발안내:** -제1차 순례: 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 11월 19일) ... 마감
-제2차 순례: 1월 15일~1월 28일(신청마감일: 1월 9일) ... 마감
-제3차 순례: 2월 19일~3월 4일(신청마감일: 2월 13일) ... 마감
- 근 동참금:** ₩ 2,190,000 (신청금 포함, 여권인자대 별도)
근 신청금: ₩ 200,000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동참금: 655,000 출발일: 1/25 2/1, 8, 15, 22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동참금: 645,000 출발일: 1/26 2/2, 9, 16, 23
태국 5일		대만 5일	
*일정: 서울-방콕-파타야-바이티아-방콕-서울			

겨울 여행 특선

최고의 여정, 최상의 서비스, 최대의 기쁨

태국(파타야) 5일 ₩ 715,000	2월 14, 5, 8, 11, 12, 15, 18, 19, 22, 25, 26일	미국 서부 버스 7일 ₩ 199,000	2월 3, 6, 10, 13, 17, 20, 24, 27일
대만(화현) 4일 ₩ 565,000	2월 1, 5, 8, 12, 15, 19, 22, 26일	중남미 역사탐방 15일 ₩ 3,990,000	2월 12, 23일 3월 2, 16, 30일
마닐라 4일 ₩ 625,000	2월 4, 11, 18, 25일	중남미 일주 20일 ₩ 4,980,000	2월 12, 26일 3월 5, 26일
홍콩·마카오 4일 ₩ 565,000	2월 3, 10, 17, 24일	유럽 5개국 10일 ₩ 1,790,000	2월 2, 9, 16, 23일
동남아 3국 5일 ₩ 745,000	2월 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일	유럽 6개국 11일 ₩ 1,990,000	2월 5, 12, 19, 26일
홍콩(캐오)·베트남·상가 8일 ₩ 1,020,000	2월 5, 12, 19, 26일	유럽 8개국 버스 13일 ₩ 1,990,000	2월 4, 11, 18, 25일
방콕·싱가포르 6일 ₩ 865,000	2월 2, 7, 9, 14, 16, 21, 23, 28일	모로코스페인 포르투갈 10일 ₩ 2,290,000	2월 2, 9, 16, 23일
동경·하코네 4일 ₩ 945,000	2월 2, 9, 16, 23일	사이판 4일 ₩ 735,000	2월 2, 3, 5, 9, 10, 12, 16, 17, 19, 23, 24, 26일
일본 일주 5일 ₩ 1,235,000	2월 7, 14, 21, 28일	팜 4일 ₩ 735,000	2월 2, 9, 12, 16, 23, 26일
일본(후쿠시마·큐슈) 6일 ₩ 1,345,000	2월 7, 14, 21, 28일	시드니·골드코스트 5일 ₩ 1,145,000	2월 5, 12, 19, 26일
하와이 5일 ₩ 679,000	2월 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일	호주·뉴질랜드 8일 ₩ 1,745,000	2월 2, 4, 5, 7, 9, 11, 12, 14, 16, 18, 19, 23, 25, 26, 27, 28일

*성수기 요금 변동있습니다. 여행조건: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 10인 이상 출발, 전일정 식사 제공(가내식 포함) 해외 여행 보험 가입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태관광 국외여행업 제817호
지회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성금에 사용합니다. ☎ 732-3200 (대)